

2024년 제1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Case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against Aquilonia (Aquilonia v. Riven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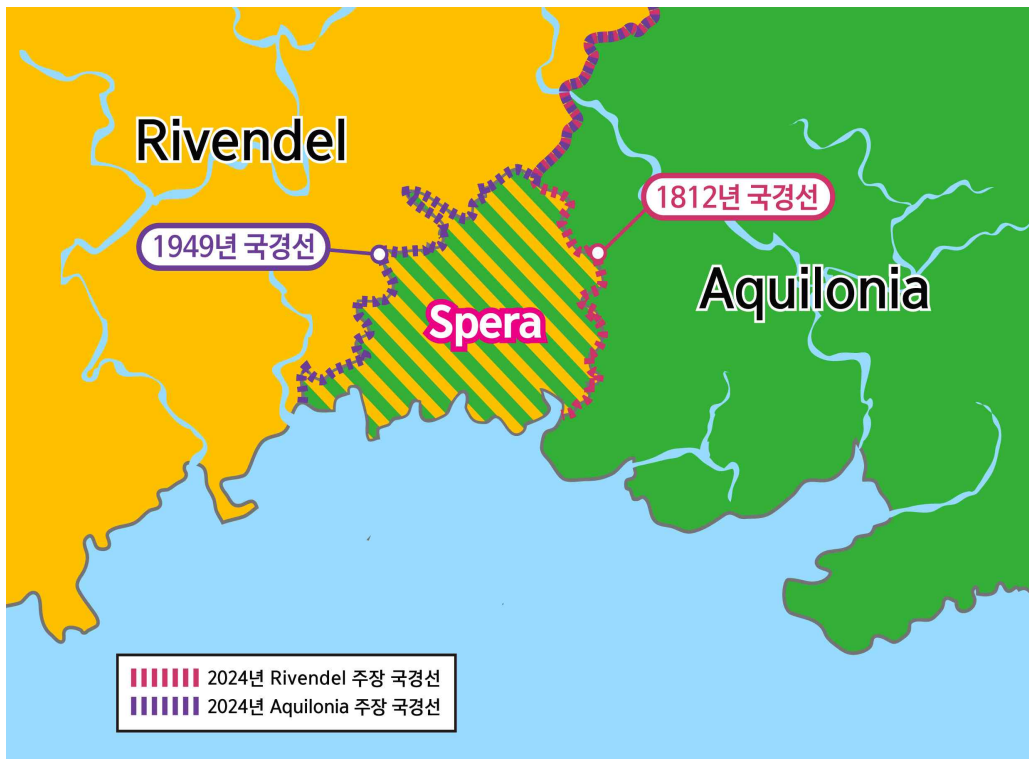
[사실관계]

1. Aquilonia와 Rivendel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Aquilonia는 아비스(Abis) 민족 80%, 바시르(Basir) 민족 14%, 우사크(Usak) 민족 6%로 구성된 국가다. Rivendel은 바시르 민족 85%, Junta(Junta) 민족 8%, 기타 소수민족 7%로 구성된 국가다.
2. Rivendel 제15대 황제 토르소는 1812년 정복전쟁을 일으켜 이듬해 Aquilonia를 복속시키고 타르네시아(Tarnesia) 왕국을 건국하였다. 토르소 황제는 칙령을 통해 “이 세상에 Aquilonia와 Rivendel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타르네시아 왕국만이 존재한다.”는 일성과 함께 두 국가의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강력한 왕권을 통해 공고히 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으로 타르네시아 왕국 군주정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들어섰다. 종전 이후 출현한 범세계적 민족주의 기조와 맞물려, 타르네시아 공화국 내 아비스족과 바시르족 간 갈등 역시 격화되었다. 이에 전후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쏟게 된 타르네시아 공화국 지도자 타우르 수반은 타르네시아를 해체(dissolution)하고 과거의 Rivendel과 Aquilonia로 국가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바시르족으로 구성된 타우르 정부가 국가 해체를 검토한 이유는 두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구 Rivendel 지역은 국가 주요 산업인 중공업이 발달하였고 풍부한 철광석이 매장된 반면, 낙농업 중심의 구 Aquilonia 지역에는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다. 이에 타우르 수반은 전후처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바시르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국가로 회귀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4. 아비스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 Aquilonia 지역에서도 민족주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아비스족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 디멘자는 타우르 수반이 국가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국경을 최대한 유리하게 획정하기 위하여 구 Aquilonia 지역 곳곳에서 해체를 반대하는 시위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 그는 시위를 중단하고 타르네시아 공화국 해체에 합의하는 대가로 과거 Rivendel 영토에 자리한

Spera 지역을 Aquilonia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Spera 지역은 타르네시아 공화국 최대 항만시설을 보유한 경제적 요충지다.

5. 타르네시아 공화국 지도자 타우르는 조속한 해체가 전후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점, Spera 지역에 있는 최대 항만시설 이외에 구 Rivendel 지역 해안선을 따라 별도의 항만시설이 존재한다는 점, 공화국 해체 반대 여론 확산을 조속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디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6. 1949년 10월 1일 타르네시아 공화국 의회는 국가를 해체하는 법안에 승인하였다. 같은 해 10월 11일 Rivendel 타우르 정부와 디멘자가 수립한 Aquilonia 정부는 1) 과거 Rivendel 영토였던 Spera 지역을 Aquilonia 영토로 인정할 것, 2) 구 타르네시아 공화국이 부담해야 하는 전후처리 비용은 Rivendel이 60%, Aquilonia가 40% 부담할 것, 3) 양국 합의에 따른 국경을 아래와 같이 획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7. 타르네시아 공화국이 해체되어 소멸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Aquilonia 영토가 된 Spera 지역의 2020년 인구는 여전히 바시르족 90%, 아비스족 10%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바시르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그간 Aquilonia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반대하였고, Aquilonia 정부 역시 해당 지역 발전과 지원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Spera 지역 주민과 Aquilonia 정부 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악화하였다.

8. 한편, 2002년 Rivendel 대통령에 당선된 핫산 틴푸르트는 2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종신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였다. 이에 과거 중공업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던 경제 대국 Rivendel은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를 장기간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다가오자 Rivendel 내부에서는 장기 집권을 종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핫산 대통령은 이러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돌리기 위하여 Spera 지역 수복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9. 2020년 2월 1일 Spera 지역 바시르족은 분리주의 무장단체 ‘인디펜투스’를 결성하고 Aquilonia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1일 인디펜투스 수장 게라샤트는 Spera 지역 분리독립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3월 31일에 시행하겠다고 공포하였다. 이에 Aquilonia 정부는 2020년 3월 15일 분리독립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주민투표를 봉쇄하기 위하여 신속대응군을 Spera 지역에 급파하였다.

10. 2020년 3월 21일 핫산 대통령은 Spera 지역 항구로부터 24해리 떨어진 지점에 단거리 유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다. 뒤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Rivendel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공포함과 동시에 Spera 지역에 거주하는 바시르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지금 Aquilonia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의에 핫산 대통령은 “바시르족의 평화로운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Rivendel은 바시르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기자회견 종료 3시간 후 Rivendel 당국은 자국 영해를 통과하고 있던 Aquilonia 국적 상선 3척을 ‘법 집행활동’의 일환으로 나포하였다.

11. 2020년 3월 22일 Aquilonia는 자국 주재 Rivendel 대사를 초치하여 미사일 발사와 핫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즉시 철회할 것과 나포된 상선을 즉각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Rivendel 대사는 본국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날 Aquilonia는 Rivendel에 주재한 자국 대사를 통해 Rivendel 외교부장관에게 같은 항의를 재차 하였다.

12. Spera 지역에 투입된 신속대응군은 예상과 달리 해당 지역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속대응군은 Rivendel로부터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은 인디펜투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Spera 지역 밖으로 철수하였고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이 시기를 틈타 인디펜투스는 2020년 3월 31일 예정대로 주민투표를 시행하였고, 주민투표 결과 Spera 지역 분리독립안이 주민 90%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2020년 4월 1일 인디펜투스 수장 게라샤트는 ‘Spera 공화국’ 창설을 선포하고, Spera 공화국 영토에 대한 Rivendel의 군사원조 및 군사개입을 공식 요청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3. 2020년 4월 3일 핫산 대통령은 Spera 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그는 게라샤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0년 4월 5일부로 Rivendel 정규군이 Spera 지역에 주둔할 것이며, 이 지역 내 바시르족의 생존과 독립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행사하겠다.” 라고 천명했다. 2020년 4월 5일 Rivendel은 기계화보병 1개 사단을 Spera 지역에 투입하여, 해당 지역을 완벽히 장악하였다. Aquilonia는 이 사태를 UN 안보리 의제로 긴급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20년 4월 7일 UN 안보리는 Rivendel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Spera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14. 2020년 5월 10일 Spera 지역에 투입되는 Rivendel 정규군이 증원되자, Aquilonia는 이를 격퇴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전투행위를 중지하였다. 한편, 2020년 5월 30일 게라샤트는 자신이 Spera 공화국 수장임을 자처하면서 “Spera 공화국과 Rivendel 간 합병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 라고 선언했다. 2020년 6월 3일 게라샤트는 “국민투표 결과 두 국가의 합병이 찬성 91%로 가결되었다.” 라고 공포했다. 2020년 6월 5일 Rivendel 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Rivendel과 Spera 공화국 간 “합병”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카르모스(Karmos)와 실레시아(Silesia)는 이를 비난하면서 Rivendel의 Spera 지역 “병합”은 무효이며, Rivendel은 해당 지역에서 즉각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5. Aquilonia 내에서는 Spera 지역을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아비스족과 바시르족 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다. 2020년 7월 11일 Spera 지역에 근접한 도시 Tatu에서 바시르족이 주도하는 또 다른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했다. 2020년 7월 13일 Aquilonia 정부는 진압 경찰을 동원하여 수천 명의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면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실행했다. 구금된 바시르족은 구금시설에서 Aquilonia 정보기관에 의하여 전기충격, 구타, 성폭력, 물고문 등을 잔혹한 대우와 고문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문 중 사망했다.

16. 한편, Spera 지역을 탈환하였다는 승리감에 도취한 Rivendel 민족주의자들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Aquilonia 전체를 예전과 같이 복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Rivendel 대통령 핫산은 이러한 여론이 자신의 종신 집권의 결정적 기회이자 명분이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Aquilonia를 상대로 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2020년 7월 15일 핫산 대통령은 Aquilonia에게 바시르족에 대한 잔혹한 인권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7.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2021년 1월 21일, 핫산 대통령은 Aquilonia에서 발생한 바시르족에 대한 인종차별과 인권탄압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Aquilonia 전역을 침공하였다. 이에 2021년 1월 21일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으며,

상임이사국 카르모스 제안에 따라 Rivendel의 침략행위를 평화에 대한 파괴로 규정하고 Rivendel군의 즉각 철수를 권고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이 투표에 상정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 벨트로니아(Beltronia)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부결되었다. UN 안보리 결의 채택이 불발되자 같은 날 UN 안보리 의장은 Rivendel의 Aquilonia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Aquilonia에 위치한 모든 Rivendel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UN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UN 총회에서도 Rivendel의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 제350호가 181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18. UN 안보리 의장성명과 UN 총회 규탄결의가 통과되자 Aquilonia는 자국 주재 Rivendel 대사를 추방하였다. Rivendel 역시 자국 내 Aquilonia 대사 추방을 시작으로 Aquilonia와의 모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Aquilonia 외교관과 국민은 3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Rivendel은 UN 안보리 의장성명과 UN 총회 규탄결의를 무시한 채 전쟁을 지속하였고, 개전 후 약 2달 만에 Aquilonia 영토의 35%를 확보 점령하였다.

19. 2021년 3월 23일 Rivendel은 전시 민간인 안전확보를 이유로 점령지역 내에 있는 아비스족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Aquilonia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이 조치는 아비스계 Aquilonia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되었다. 이와 달리, Rivendel은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Aquilonia 국적의 민간인 중 바시르족은 자기 의사에 따른 자발적 거주를 허용하였다.

20. 같은 날 Rivendel은 군사점령 지역 내 민간병원에 Aquilonia 민병대 사령관이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포격하였다. 이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민간인 100명이 사망하고 230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Aquilonia 민병대 지휘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Rivendel 점령지역에 있는 Aquilonia 국적 아비스족이 주축이 되어 군사점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Rivendel 점령당국은 질서유지 명목으로 시위를 강제 진압하고 해당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21. Rivendel 점령지역 내 저항 세력이 급증하자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Aquilonia 국적의 바시르족은 친 Rivendel 성향의 무장단체 '바시르민주전선'을 결성하였다. 바시르민주전선은 아비스족 시위대를 반란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나, Rivendel 점령당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서구 언론들은 Rivendel 정부가 점령지역에서 살인과 테러를 자행하는 바시르민주전선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무장단체의 임금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2. 2021년 4월 2일 바시르민주전선은 점령지역 내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하고 다음과 같은 방송을 보도하였다.

모든 바시르족이여 봉기하라. 대 타르네시아의 영광재현을 반대하는 반동분자들은 바시르족의 원수이자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다. 이들 바퀴벌레를 말살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보라. Rivendel 통일 전쟁에 불만을 품거나 반대하는 자가 바로 그 바퀴벌레다.

바시르민주전선은 라디오 방송 이후 점령지역 내 동쪽에게 바시르족 전통 도검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바시르민주전선의 라디오 방송이 보도된 일주일간 Rivendel 점령지역 내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Aquilonia 국민이 바시르민주전선과 바시르족 민간인에 의하여 살해당했으며, 그중 아비스족이 2,800여 명에 달하였다. 2021년 4월 10일 Rivendel 정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으로 희생당한 아비스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바시르민주전선 공격에 자국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Rivendel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떠한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다.

23. Rivendel의 Aquilonia 침공에 대한 벨트로니아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UN 안보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UN은 카르모스와 실레시아의 주도 아래 2021년 4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제377호를 채택하였다. 동 결의는 1) Rivendel의 침략행위를 평화에 대한 파괴로 규정하고, 2) Rivendel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파병 등 가용한 모든 수단(all necessary means)을 Aquilonia에게 자발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3) 파병으로 다국적군이 조직될 경우 UN군이라는 명칭과 UN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카르모스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신속대응 함대와 3개의 신속대응 사단을 주축으로 8개국이 파병한 다국적군이 창설되었다. 2021년 4월 17일 다국적군의 야간 대규모 정밀유도공습이 개시되면서 점령지역 내 Rivendel의 군사력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24. 2021년 5월 30일 Rivendel 정부는 다국적군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Aquilonia 정부에 무조건적 휴전을 제안하였다. Aquilonia가 이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국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휴전회담을 개최하고, 6월 12일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1. 현재의 분쟁을 종식하고 자국의 영토로 다국적군을 포함한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
2. 병력의 최종 철수는 2021.07.01. 일부로 완료한다.
3. 각국의 영토는 무력충돌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
4. 평화조약을 위한 별도의 교섭은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쟁 개시의 책임소재 및 그에 대한 후속처리도 평화조약에서 처리한다.
5. 휴전협정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에 관한 문제는 양국의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5. 2021년 7월 1일 휴전협정에 따라 다국적군이 철수 및 해체되었다. 같은 날 Rivendel은 Aquilonia 점령지역 내 자국 병력을 Spera 지역으로 철수시켰다. 이에 Aquilonia는 Spera 지역이 자국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Spera 지역 내 주둔하는 Rivendel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Aquilonia는 2020년 3월 21일 Rivendel이 나포한 상선의 반환을 요구하고, 2021년 3월 23일 자국민 강제이주와 민간병원 포격에 대하여 관련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2021년 4월 2일 이후 발생한 바시르민주전선에 의한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배상을 Rivendel에 요구하였다.

26. Rivendel은 구 Spera 공화국과 Rivendel의 합병에 따라 Spera 지역은 국제법상 자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 병력 철수를 거부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21일 발생한 상선 나포는 국제법상 적법한 나포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Rivendel은 2021년 3월 23일 민간인 이동과 병원 포격 역시 국제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2021년 4월 2일 이후 발생한 바시르민주전선에 의한 제노사이드 범죄는 자국과 무관한 사안이라 답변하였다.

27. Aquilonia와 Rivendel은 모두 UN 회원국으로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선택 조항(optional clause)’을 어떠한 유보도 첨부하지 않고 수락한 상태다. 두 국가는 모두 1948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1948년 고문방지협약, 1949년 4개 제네바협약 및 1977년 2개 추가의정서, 1982년 UN해양법협약 당사국이다.

[청구취지]

28. 2024년 1월 1일 Aquilonia는 본 사안을 ICJ에 제소하고, 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주장과 청구를 제출하였다.

- ① Rivendel의 Spera 지역 점령은 UN 헌장 제2조 제4항, 제7항 및 UN 안보리 의장성명 위반에 따른 불법 병합이다. 따라서 Rivendel은 Aquilonia에게 Spera 지역을 반환하고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 ② Rivendel이 2020년 3월 21일 자행한 Aquilonia 상선 나포는 국제법 위반이므로, Rivendel은 불법 나포한 상선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
- ③ Rivendel이 2021년 3월 23일 자행한 Aquilonia 국민의 강제이주와 민간병원 포격은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위반이다. 따라서 Rivendel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액 500만불을 지급해야 한다.
- ④ 2021년 4월 2일 바시르민주전선의 행위는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며, 이들 무장단체를 지원한 Rivendel은 제노사이드에 따른 손해배상액 1,000만불을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 바시르민주전선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에 대하여, 해당 지역 점령 당국 Rivendel은 1948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위반에 따라 동일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29. 피제소국 Rivendel은 2024년 2월 13일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ICJ는 ICJ 규칙 제79조 제9항에 근거하여, Rivendel 항변이 배타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가지지 않고 본안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본안에서 다루기로 선언하였다.

30. 이에 Rivendel은 응소를 결정하면서, 상기 Aquilonia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이하 자신의 주장을 채택하여 줄 것을 ICJ에 요청하였다.

- ① 국민투표에 따른 Rivendel과 Spera 공화국의 합병은 국제법상 적법한 합병이므로 Spera 지역은 자국 영토다.
- ② Rivendel은 2020년 3월 21일 적법하게 상선을 나포하였다.
- ③ Rivendel이 2021년 3월 23일 점령지역 내 Aquilonia 민간인을 이동시킨 행위와 적군 지휘관이 거주하는 병원 포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이 아니다.
- ④ 2021년 4월 2일 점령지역에서 발생한 바시르민주전선 사건은 Rivendel의 행위가 아니며,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정권(법집행) 행사는 제한되므로 Aquilonia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끝.